

궁금합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홍보부 -

사 양

Q 수유중인 모돈(분만 10일 정도됨)이 기립불능이고 기립하려고 해도 뒷다리를 x자로 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시 쓰러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바가지에 물을 떠서 흘려주면서 급수를 하고 있고 급이는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포유자돈들은 대용유 및 모돈의 젖을 먹고 있는데 모돈이 워낙 허약하여 걱정입니다. 증상은 분만 후부터 물은 먹었는데 사료를 먹지 않고, 농장예의 조치는 항생제 및 해열제, 영양제, 철분, 칼슘제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상의 원인, 대책 등을 부탁드립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컨설팅클리닉 대표>

열이 나는 것으로 보면 어딘가 염증이(자궁질 환이나 방광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태아정체 등으로 염증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 등으로 식욕부진이나 절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만 10일이 경과되었다니 늦은 감이 있네요. 일단 자돈은 양자를 보내시고, 모돈은 5% 포도당 + 광범위 항생제 등으로 정맥 주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성을 기울인다는 면에서는

정맥주사를 해보시고 그렇지 못한다면 도태를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 병

Q 7월 8일 출산할 임신돈이 이틀간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임신돈 음부가 부어서 썩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지요?

A <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임신말기에 연약해진 생식기에 외부로부터 세균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만이 가까워졌을 때 산도를 통한 외부감염이 쉽게 이루어져거든요. 실험실에서 정밀진단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겠지만요. 이렇게 세균감염의 급성기에는 체온이 상승함으로 사료를 잘 먹지 않습니다. 이미 조직 깊숙히 세균이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광범위 항생제 주사를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두면 패혈증으로 모돈이 폐사하게 됩니다. 분만 후에도 항생제 주사로 혹시나 분만중 산도의 상처로 세균이 감염될 수 있으니 같은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양주**